CGV, 한국영화 흥행작 '시그니처K관'·재개봉 전용 '별★관' 운영

그때 그 감성의 영화를 만나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신작 영화 개봉이 연기되거나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안방에서 만날 수 있게 되면서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최근 영화관을 다시 찾을 이유가 생겼다. CGV가 재개봉작만을 상영하는 특별 상영관 '별★관(별관)'에 이어 흥행에 성공한 한국영화를 다시 선보이는 특별관을 개관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뮤지컬, 클래식 공연실황 등도 스크린에 올리면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CGV는 오는 17일 광주터미널점에 2000년대 전후로 개봉했던 한국영화를 극장에서 다시 개봉하는 '시그니처K' 상영관을 런칭한다.

'시그니처K' 상영관에서는 올해 말까지 CGV만의 테마별 큐레이팅을 통해 우리들의 기억 속에 명작으로 남아있는 한국영화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 그 때 그 시절의 작품들을 처음 만나는 관객들과 이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극장을 찾는 모두에게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객들은 디지털 리마스터링 복원 작업으로 향상된 화질과 음질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3월의 테마는 '시그니처K BEGINS : 한국영화 르네상스의 시작'이다. 이름 그대로 2000년대 한국영화 르네상스의 포문을 연 영화 2편을 선보이는 기획으로 흥행과 비평에서 모두 성공을 거둔 '태극기 휘날리며(2003)'와 '공동경비구역 JSA(2000)'를 상영한다.

17년 만에 극장에서 선보이게 된 '태극기 휘날리며'는 17일부터 만날 수 있다. 2004년 개봉 당시 '실미도'에 이어 두 번째로 1000만 관객을 동원했으며 강제규 감독이 연출하고 장동건과 원빈이 형제로 출연했다. 6.25 전쟁을 배경으로 엇갈린 형제의 비극적 운명과 희생당하는 가족사를 그렸다.

'공동경비구역 JSA'는 24일부터 상영한다. 박찬욱 감독 작품으로 송강호·이병헌·이영애·신하균 등 국내 톱 배우들의 20 여년 전 모습을 볼 수 있다. 판문점에서 벌어진 남북 군인들의 총격 사건을 풀어가며 분단의 비극과 진한 휴머니즘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두 작품을 관람한 관객들에게는 영화 일러스트 이미지로 디자인 한 한정판 티켓도 선착순 증정한다.

CGV는 앞서 지난해 12월 재개봉작만을 상영하는 특별 상영관 '별★관(별관)'을 광주상무점에 오픈했다. '별★관(별관)'에서는 특별한 테마로 엄선된 재개봉 작품들을 최소 2주간 상영하는데, 현재 '카페 소사이어티(2016)'와 '서치(2017)'를 상영중이다.

'카페 소사이어티'는 우디 앨런의 작품으로 1930년대 미국, 사교계를 일컫는 '카페 소사이어티'를 배경으로 펼쳐진 뉴욕 남자 바비와 할리우드 여자 보니의 로맨스를 그렸다. 아니쉬 차간티 감독의 '서치'는 실종된 딸의 행방을 찾는 아빠의 고군분투를 다룬 작품이다.

별★관에서는 상시 7000원으로 관람 가능하며, 영화별로 다양한 굿즈도 만나 볼 수 있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허트 로커', '원초적 본능'도 상영할 예정이다.

CGV는 이 밖에도 뮤지컬, 무용, 연극, 클래식 공연실황 등을 영화처럼 극장에서 상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시간적, 거리적 제약으로 접하기 어려웠던 작품들을 영화관에서 만날 기회가 늘어난 셈이다.

CGV는 현재 광주터미널점에서 창작 뮤지컬 '잃어버린 얼굴 1895' 상영하고 있다. 이 작품은 역사적 이야기에 상상력을 덧붙인 '팩션'(Faction) 사극으로 명성황후의 이야기를 풀어낸 뮤지컬이다. 관객들은 스크린을 통해 단순히 라이브 공연을 영상으로 옮긴 것이 아닌 9대의 4K 카메라를 이용해 완성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과 '올해의 레퍼토리' 공연도 꾸준히 스크린을 통해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이탈리아 오페라 공연을 선보이는 '월간 오페라'를 런칭, '라 트라비아타', '돈 파스콸레' 등을 상영했으며, 현재 코로나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함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베르디의 '레퀴엠'을 상영중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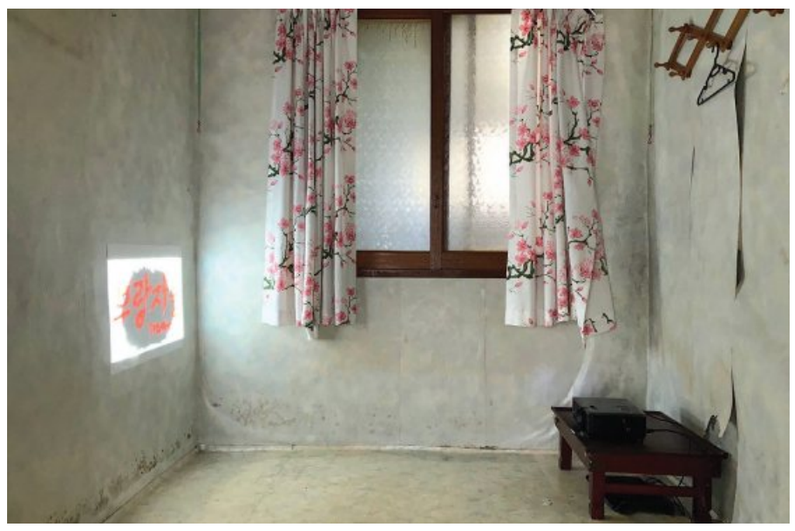
추억소환

'공동경비구역 JSA'
'태극기 휘날리며'
'카페 소사이어티', '서치'

뮤지컬·무용·클래식 공연 실황도

'공동경비구역 JSA(2000)'

'태극기 휘날리며(2003)'


광주 서구 빈집에 전시된 김수환 작 '부랑자들'

'빈집-상실 이후에 쓰는 사랑'

영상 제작소 만지작, 5~12일 월산동 등 빈집서 전시

아파트가 수도 없이 들어서고 있는 광주 도심엔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누군가 오랜 세월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지만 사라지는 공간에 대한 흔적을 살피고, 새롭게 해석하고 기록하는 일은 거의 없다.

도심 공동화 속, 늘어만 가는 '빈집'의 의미를 모색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서구·남구·북구·광산구의 빈집은 전시공간으로 변모했고, 그곳에서 '빈집-상실 이후에 쓰는 사랑'을 주제로 5일부터 12일까지 전시회가 열린다.

지난해 결성된 '영상문화콘텐츠 제작소 만지작'의 첫 프로젝트다. 미술평론가, 철학 전공자, 영상 제작자 등이 의기투합한 '만지작'은 지역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역사, 인물, 예술을 아울러 지역의 지속가능한 삶의 가능성을 콘텐츠로 제작하는 그룹이다.

참여작가는 광주와 대전·인천에서 활동하는 작가들로 정유승·김수환·이상호·박화연·오석근·윤석문 작가를 초청했다.

서구 상록도서관 뒷편의 빈집(월산로 235번길 15-1)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한 정유승 작가는 사진과 플래카드로 작업한 '지평선'을, 김수환 작가는 영상 작품 '햇살 요양원', '부랑자들'을 선보인다.

남구 사직공원 인근 빈집(사진안길 1-9 102호)은 민중미술 작가 이상호가 전시공간으로 활용해 '병원에서 아버지' 등 드로잉 시리즈를 선보이며 오월과 사북항쟁에 대한 작업을 해온 박화연 작가는 북구 지역 빈집(군왕로 47-2 2층)에서 '쓰이지 않는 영상 속'을, 오석근 작가는 '교과서-철수와 영희, p.269' 등을 전시한다.

광산구는 빈집 대신 카페 '빵과 장미'(상도산길 54)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해 윤석문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

7일 오후 2시에는 광주독립영화관 영상실에서 '빈집의 예술 사회학'을 주제로 집담회가 열린다. 정경운·윤수종, 참여작가들이 함께한다. 자료집은 단행본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

순박하고 아름다운 '민화 美來(미래)를 보다'

금봉미술관, 26일까지 전시회

'전통과 현대적 미감이 어우러진 민화를 만나다.'

최근 민화(民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화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 민화를 활용한 다양한 아트상품들도 눈길을 끈다.

옛사람들이 삶 속에서 같은 주제를 되풀이해 관습적으로 그린 생활화를 일컫는 민화는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우리 삶을 순박하고 질박하게 표현해낸다. 복을 받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종교에 대한 믿음, 생활 풍속 등 우리 정서의 따뜻한 정감과 친근한 색감을 화폭에 담았다.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금봉미술관(관장 한상운)은 오는 26일까지 '민화 美來(미래)를 보다'를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아름다움이 오다'는 의미와 '미래의 비전' 두 가지 의미를 담은 주제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민화의 미감을 보여주는 전통채색화를 비롯해 수채화, 도예, 목공예 등 다양하게 해석된 민화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에는 강은숙·강정숙·고미아·고희자·김명주·김은수·김선혜·김정하·박미정·배수정·박오순·이진영 등 모두 24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전시에서는 세화도, 책가도 등 전통 민화와 함께 자신만의 시각으로 민화에 현대적 느낌을 가미한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한승룡 작가의 '호작도'는 민화를 활용한 다기 세트로 관심을 모으며 꿩과 매화, 연꽃 등 민화에서 만나는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한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최미경 작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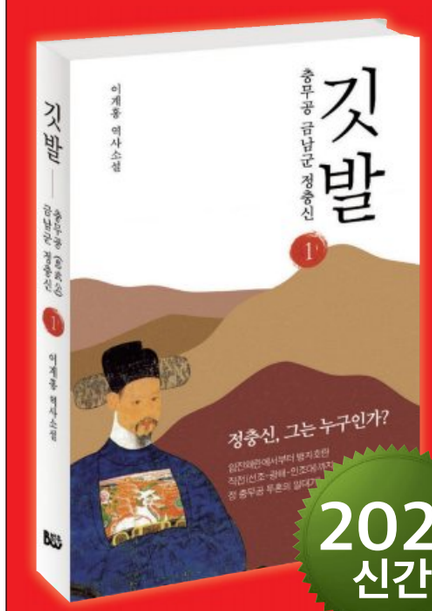
목포문학관·땅끝순례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선정

목포문학관과 땅끝순례문학관이 '지역문학관 상주 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학관협회는 목포문학관, 땅끝순례문학관 등 33개 지역문학관에서 운영하는 상주 작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선정된 문학관에는 상주 작가 인건비 월 220만 원(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포함), 지역주민 대상 문학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 원, 문학관 소장자료 영상제작 비용 200만 원을 지원한다.

먼저 목포문학관은 3월부터 11월까지 '문학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문학관', '문학 아카데미', '학교를 찾아가는 문학동아리', '유트뷰로 만나는 목포문학관'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하게 조정할 예정이다.

땅끝순례문학관도 3월부터 11월까지 '책 읽고 감명 깊은 문장쓰기', '작가 멘토링' 등을 진행한다. '감명 깊은 문장쓰기'는 상주작가가 선정한 책을 읽으면서 함께 공유하고 마지막 11월에 문장들을 전시한다. '작가 멘토링'은 예비 작가들을 위해 글쓰기를 지원할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대면, 비대면을 병행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반도를 지켜낸
열일곱 소년의 힘찬 '깃발'
"만약 선조임금이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면
조선이란 나라는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계홍 역사소설 깃발①~⑤
바다에는 李충무공, 육지에는 鄭충무공이 있었다!


충무공 금남군 정충신 —
그는 임진왜란에서부터 병자호란 직전까지
오직 군인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그 일생은
드라마적 파노라마 그 자체이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군됐으며,
광주광역시 금남로는 정충신의 업적을 기려
시호인 금남군에서 유래되었다.
60년 생애 덕장으로
명성을 떨친 충무공 정충신 투혼의 일대기!
* ** 신국판 / 310~348쪽 / 각권 값 13,000원

외항선 선장 출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바다 이야기

선장 교수의 고향 사랑
《바다와 나》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바다관련 생활 에세이 13편 등 모두 48편을 실었다.
김인현 지음 | 신국판 | 340쪽 | 값 15,000원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제5쇄 발매중

한 출판인의 자화상
지난 반세기 동안 출판의 외길을 걸어온 저자의 자화상이며,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살아온 삶 자체이다.
윤형두 지음 | 신국판 | 528쪽 | 값 15,000원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에서 무슨 악행을 저질렀는가!

알수록 이상한 나라 일본
왜 일본 정권은 침략주의 과거사를 미화美化하는가
왜 역사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들을 국적으로 모는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일성 지음 | 신국판 | 332쪽 | 값 15,000원

정유재란 7주갑을 맞아 펴낸 한중일의 공동연구서

정유재란사 - 한중일 공동연구
7년전쟁의 종전 7주갑이 되는
2018년 11월의 노량해전에 맞춰 펴낸 책.
정유재란을 '잊혀진 전쟁'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조원래 외 지음 | 4×6배판 양장 | 688쪽 | 값 70,000원

www.bumwoosa.co.kr 전화 : 031)955-6900~4 예금계좌 : 054-24-0001-338 국민은행 예금주 : 범우사(윤형두)